

여름철 디지털 카메라 관리와 사용, 이렇게 하라

지루한 장마가 끝이 나면 본격적인 휴가 시즌에 접어든다. 산과 바다로 일상과 더 위에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기 위해 많은 이들이 휴가를 떠난다. 여행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버린 디카에 대해 조금만 알고 떠나자. 휴가지에서 디카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즐거운 휴가 기분을 망칠 수 있다. 또한 여기에 그동안 간과했던 촬영요령을 익혀간다면 더욱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1. 사진 촬영 TIP

▶반셔터 익히기-디지털 카메라(이하 디카)는 배터리만 넣고 셔터만 누르면 된다고 하지만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먼 거리에 있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즉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하여 사진촬영을 할 경우에는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반셔터'이다.

SLR 등의 카메라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디카는 LCD창을 보면서 촬영을 하게 된다. 이때 카메라의 AF(Auto Focus)는 정중앙을 기준으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 따라서 2명 정도의 인물을 두고 촬영을 하게 된다면 자동초점이 인물사이로 추정하여 인물은 초점이 안맞고 풍경만 맞아버리는 이상한 사진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이때 인물 중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셔터버튼을 가볍게(반셔터) 누르면 초점 맞은 램프가 점등한다. 이때 손가락을 떼지 말고 화면을 구성한 다음 촬영을 한다면 인물과 배경이 깨끗하게 나온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메모리/해상도 활용하기-필름 값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디카의 큰 장점이다. 그렇다고 무한대로 촬영할 수 없는 것이 또 디카이다. 디카의 경우 메모리 용량에 따라 촬영매수가 달라지며 촬영해상도의 설정에 따라 촬영매수가 달라진다.





128MB메모리 기준		
촬영 해상도	촬영 가능 매수	최대 인화 사이즈
2,592×1,944	25	16×20인치
2,048×1,536	40	11×14인치
1,024×768	162	5×7인치
640×480	416	3.5×5인치

위의 표를 참조해서 본인의 촬영습관과 촬영매수 등을 고려하여 메모리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처럼 휴가 길에 어떤 멋진 풍경을 담을지, 나와 가족의 멋진 모습과 풍경을 순간적으로 담을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해상도는 가급적 크게 설정하고 촬영한다. 여행을 다녀와서 멋진 사진을 발견하고 확대하여 인화하려 했을 때 해상도가 부족하여 제일 작은 사이즈인 3.5×5인치로 인화하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는 디카가 500만, 600만 화소라 하더라도 무색해지는 경우이다. 일단 촬영된 사진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촬영당시에 신경을 쓰는 방법밖에 없다. 대용량 메모리가 없다면 촬영후 메모리를 비워야하는데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PC방으로 달려가 무료로 제공되는 앨범에 사진을 올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카메라 관리 TIP

▶고온에 주의한다

모처럼 휴가길 차량이 정체되면 사람도 열 받고 카메라도 열 받는다. 디카의 경우 차량의 내부 등 고온에 두게 될 경우, 기기가 뜨거워지게 되면 LCD에 줄이 가고 열 노이즈가 많이 생긴다. 따라서 카메라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전용 가방에 넣어 항상 휴대하고 촬영즉시 전원을 꺼두는 것이 좋다. 또한 오랫동안 사용해도 카메라 자체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촬영 후 LCD 등을 꼭 끄는 습관을 갖자.



▶습기에 주의한다

바다와 강처럼 습기가 많은 곳이나 비가 내린 뒤 디카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꼭 습기 제거를 하자. 디카는 매우 정밀한 기기이기 때문에 습기에 무척 약하다. 촬영 후에는 깨끗한 수건이나 전용 천을 이용하여 습기를 제거한 후 보관하도록 하자. 마땅한 습기제거제가 없으면 신문지로 감싸두어도 좋다. 이때 배터리와 메모리도 분리해놓고 습기를 제거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물로부터 보호하라, 그러나 물에 빠졌을 경우는

바다와 강의 특징은 바로 물이다. 물이 튀었거나 물에 빠뜨렸을 때는 디카에 있어 생명(?)과도 직결되는 일이다. 따라서 많은 양의 물을 먹은 경우, 또는 물에 빠진 경우라면 신속하게 배터리와 메모리를 분리하고 최대한 습기제거에 노력하자. 또한 사용을 자제하고, 곧바로 A/S센터를 방문하여 수리를 맡기도록 하자.

▶모래로부터 보호한다

일체형 디카의 경우 렌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을 모르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고장의 원인이고 수리비 또한 많이 든다. 바닷가에서 바람에 의해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블로어등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후 사용하도록 하자.

